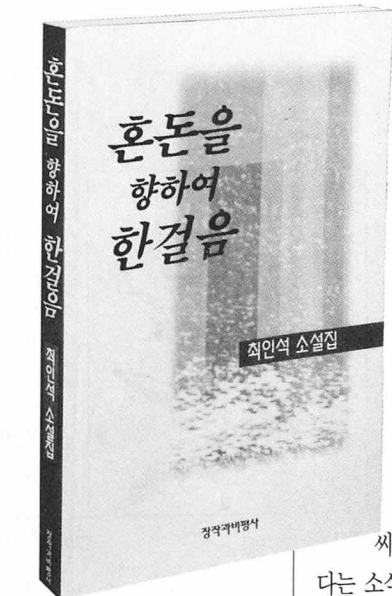


'구경꾼'에서 혼돈을 걷어내는 당당함으로

소설집 《혼돈을 향하여 한걸음》 펴낸 최인석씨



최인석씨.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제도, 사람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의 ‘이성’에 기대야 합니다.”

소설가 최인석씨(44)는 여전히 인간의 ‘이성’을 신봉한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미가 없는 권위적이고 냉정한 ‘이성’이 아니라, ‘관대한 이성’이고 ‘모성적인 이성’이다.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이를 보살필 줄 아는 따뜻한 인간애가 실린 사람의 얼굴을 한 이성이다. 한편 권력에 대해서는 심한 회의를 갖고 있다. 이성을 통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리라 여겼던 이들의 배신을 역사 속에서 솔하게 봐왔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세상을 보는 눈, 한층 두터워져

이러한 작가의 세계관은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난다. ‘관대한 이성’의 추구는 소외계층을 향한 따스한 시선으로, 반인간적인 권력에 대한 대응은 저항의 형태로 표출된다. 사고무친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좌익 장기수를 묘사한 <철로는 밤에도 반짝인다>가 전자를 대표한다면, 장편소설 《새떼》는 후자를 대표한다. 여기에 최인석 문학의 뼈통을 수 없는 특징인 중산계층의 기회주의적이고 양면적인 의식과 심리의 포착이 있다.

이번에 나온 네번째 소설집 《혼돈을 향하여 한걸음》(창작과비평사)은 한층 두터워진 세상을 보는 안목과 더욱 농밀해진 소설 빛는 솜씨를 보여준다. 최인석 문학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도 한결 성숙해진 양태로 현

시된다.

표제작 <혼돈을 향하여 한걸음>에는 이중적인 소시민의식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두텁게 먼지가 올라있는 책에서 삶을 보는 영우는 ‘이건 여그 풍습이네. 풍습엔 옳고 그른게 없는 법이네’라고 하는 현정순의 말을 킷전으로 흘리며 가족을 저버린 아버지와 화해에 이른다. 작가와 비평가 사이에 뜨거운 논란을 일게 한 <숨은 길>은 권력문제를 다루는 최인석의 방식을 보여준다. 삼청교육대를 소재로 한 <노래에 관하여>는 감옥을 무대로 벌어지는 일련의 작품에서 연장선상에 있다. 가까이는 <내 영혼의 우물>과 멀게는 <안개>에서 시작된다.

사실, 최인석 소설에서 감옥에 대한 정황 묘사는 몹시 생생하다. 작가가 수형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는 자신의 이력을 밝히길 꺼려하는데, 책 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도 출생지와 작품목록으로 채우고 있을 뿐이다.

“내 이력에 대한 설이 분분하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3학년까지 다니다 군에 입대했다.” 그리곤 군에서 이른바 ‘남한산성’에 끌려가는데, <안개>는 그런 경험의 산물인 셈이다. 학교는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연극판에 뛰어들다. 희곡작가가 되기로 마음 먹은 것은 78년 습작품이 워크숍에 올려져 자신의 작품이 시연되는 감동을 경험하고 나서다.

80년 희곡 <벽과 창>으로 《한국문학》 신인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나왔다. 이후 여러 번

의 수상경력이 말해주듯이 뛰어난 극작가로 인정받는다. 그러던 중, 5공화국의 암담한 정국에서 올려진 ‘광대의 꿈’을 끝으로 무대를 잃고 만다. 판소리꾼 송홍록의 일대기를 그린 이 연극은 자연스럽게 조선후기의 폐쇄된 시대상과 계층 갈등을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문공부 장관이던 이원홍

씨가 이 연극을 보고 아주 불쾌해했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일감이 끊긴다.

“그래서 검열의 압력이 희곡보다는 덜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경꾼》이 태어났다. 치기가 드러나는 부끄러운 작품이라고 말하면서도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다. “시대상황에 주눅이 들어서인지 직접화법보다는 간접화법에 의존한 소설입니다.”

최인석씨는 민족문학진영의 젊은 작가들

에게 만형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베트남을 생각하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의 초대회장 일을 떠맡기도 했다. 최근 <초록물고기>를 통해 영화감독이 된 이창동, 시인 김사인, 소설가 박인홍 등이 그와 가까운 벗이다.

‘죄의식’에 관한 장편 구상중

데뷔작이 7만부 팔린 이후 후속작들의 판매량은 내리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어도 글을 써서 돈을 벌거나 유명해질 생각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머리 속에 든 생각과 씌어진 글 사이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소망이고, ‘죄의식’에 관한 장편소설을 구상 중이다.

희곡에서 받은 각광과는 달리 그의 소설에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 뒤늦은 문학상 수상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제야 독자들이 나설 때다. 왜냐하면 그는 으젠느 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스타달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최인석을 읽자’ — 최성일 기자

최인석은 네권의 소설집과 네권의 장편소설을 갖고 있다.

《구경꾼》(소설문학사, 1986)은 제6회 소설문학상 수상작으로 작가의 등단작이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스스로 당선작임을 주장’한다는 평을 들었다. 《잠과 늪》(실천문학사, 1987)은 장편소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엄밀히 말하면 첫번째 소설집. 최인석 문학의 원형을 담고 있는 귀중한 책이다. <안에서 바깥에서>는 장편소설로 발전하고, <독수리>는 세번째 소설집에 채수록. ‘그’에 대한 부채의식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새떼》(현암사, 1988)는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이 더 잘 알려진 장편. ‘그’가 하고조라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내 마음에는 악어가 산다》(살림, 1990)는 방송국 프로듀서인 주인공의 삼중적인 삶을 통해 전문 지식인의 자폐적인 상황을 탁월하게 그렸다. 두번째 소설집 《인형만들기》(한길사, 1991)는 장인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된 빼어난 작품집. 작가의 개입이 없는 ‘보여주기’에 탁월하다.

《안에서 바깥에서》(푸른나무, 1992)는 3부작으로 계획된 성장소설의 제1부. ‘그’가



‘그놈’의 형태로 변진. 《내 영혼의 우물》(고려원, 1995)은 90년대 한국문학의 알찬 수확으로 기록될 세번째 소설집이다. <세계의 바닷가>의 주제는 조만간 죄의식을 다룬 장편으로 되살아날 듯. 그리고, 《혼돈을 향하여 한걸음》(창작과비평사, 1997). ◆